

1. 이름 : 최 진 웅(Choi, Jin woong)
2. 최종학력 : 2017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
3. 주요 개인전  
2025 연결을 향한 기록의 여정 <비연결, 연결, 재연결> (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, 광주)  
2021 갤러리 카페 '시점' 개인 사진전 <일상이란 길 위에서> (갤러리카페 시점, 광주)
4. 주요 단체전  
2025 제5회 아트그룹 하랑 정기전시회 <예술의 향기> (갤러리하얀, 순천)  
작은 청춘 마켓 청춘소품전 9인 전시 <Piece by youth> (갤러리현, 광주)  
아트그룹 하랑 10인 전시 <함께 날다> (미담갤러리, 광양)  
예술의 거리 <탐닉의 순간들> (무등갤러리, 광주)  
2024 예술의 거리 레지던시 결과발표전 <-로부터>(무안요 갤러리, 광주)  
2021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도시사진전 전시 (시민청/시청역, 서울)  
광주시교육청, 광주시립미술관 찾아가는 전시 <네가 될지도> 그룹 전시 참여  
(선운중/동아여자중/일곡중/용두중/대광여자고등학교, 광주)  
2020 291photographs <500photographs Portfolio> 기획전 008 '9월의 사진작가' 전시  
(롯데타워 291photographs, 서울)  
롯데백화점 <보통의 여름> 전시 (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, 인천)
5. 연락처 : 010-7307-3518
6. E-mail : [wung\\_geul@naver.com](mailto:wung_geul@naver.com)

7. 비평문 : <우리가 지나친 일상에 대해>

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친다. 스마트폰 화면 속에 시선을 고정해 채, 같은 버스에 앉은 낯선 이의 눈물도,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굵은 등도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보낸다. 이 작업은 바로 그 '흘러보냄'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자, 그것을 되돌리려는 사진가의 조용한 실천이다.

작가의 카메라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. 화려한 사건이 아닌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상의 단면들에 렌즈를 맞춤으로써,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워온 타인의 시간을 다시 화면 위로 불러낸다. 고발보다는 공감, 분석보다는 온기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이 시선은 독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.

결국 이 사진들은 보는 이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진다. 당신은 오늘 몇 개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쳤는가? 작가는 앞만 보고 내달리는 누군가의 삶 곁에 잠시 멈추어 볼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두고, 그 안에서 "따뜻한 햇살 같은 특별한 일상"을 발견하자고 조용히 권한다.